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9-2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2025 부동산인식조사:
주택 매각 및 이사 계획,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2026. 3. 4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택 매도 계획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24%... 2년 내 이사 계획 있거나, 5년 내 주택 구매 계획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보유 주택 처분 계획 있어

지난 2025년 11월 7일 ~ 10일 진행한 조사에서,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된 주택을 가진 사람 657명에게 보유 주택 처분 계획을 물었다. 24%는 향후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1년 안에 5%, 1~5년 내 19%). 5~10년 내 팔 계획이라는 사람은 14%, 10년 이후라는 사람은 4%이며, 59%는 현재 집을 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023년 27%, 2024년 26%, 2025년 24%로 25% 내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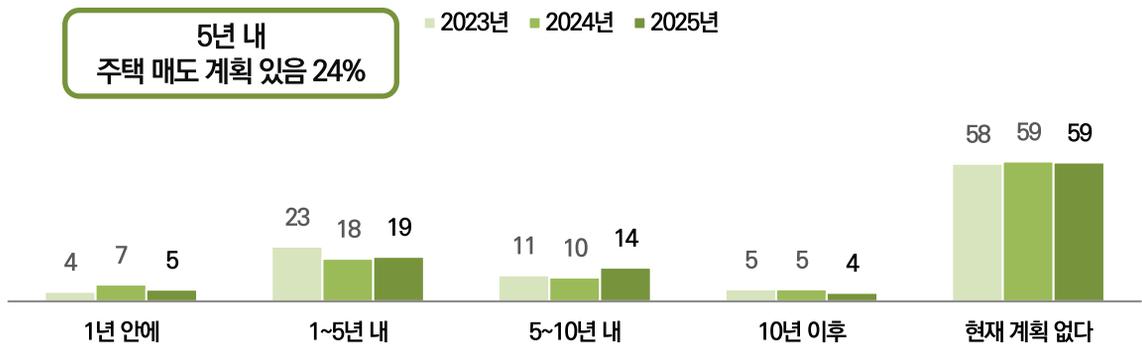
주택 구입 계획과 매도 계획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향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 중 53%가 5년 내 보유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계획이 없는 사람 중 14%만이 5년 내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새 집을 사려는 사람일수록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유주택자 중에서는 15%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어, 구매 계획이 없는 사람과 비슷하다. 다만 5~10년 내 매도 계획을 가진 사람은 34%로, 3명 중 1명은 새 집 매입 시기에 맞춰 기존 주택도 처분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 계획 여부에 따른 차이도 크다.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 중 5년 내 보유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7%로 3명 중 2명 꼴이다. 2년 후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도 41%가 5년 내 매도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이사 계획이 없는 사람은 6%만이 5년 내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해, 이사 계획 유무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 중 34%가 향후 5년 내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해, 1채 보유자(21%)대비 13%포인트 높다. 현재는 집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채 보유자 61%, 2채 이상 보유자 49%로 절반 혹은 그 이상이다.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24%, 최근 3년 간 비슷
59%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 없어

(단위 : %)



질문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2023년 601명, 2024년 640명, 2025년 657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 2024. 11.8 ~ 11 // 2025. 11. 7 ~ 10

2년 내 이사 계획 있거나, 5년 내 주택 구매 계획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보유 주택 처분 계획 있어

(단위 : %)

	사례 수 (명)	보유 주택 처분 계획					현재는 계획 없다
		1년 안에	1~5년 내	5년 내	5~10년 내	10년 이후	
전체	(657)	5	19	24	14	4	59
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							
하고 있음 - 부담됨	(222)	5	18	23	21	5	51
하고 있음 - 부담 안 됨, 모름	(75)	5	23	28	14	4	54
하지 않음	(359)	5	18	23	10	3	64
보유 주택 수							
1채	(515)	4	16	21	14	4	61
2채 이상	(142)	6	28	34	14	3	49
주택 구입 계획							
향후 5년 내	(154)	13	40	53	14	2	31
향후 5년 이후	(129)	1	14	15	34	9	42
구매 계획 없음	(373)	3	12	14	7	3	76
이사 계획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 있음	(71)	32	34	67	4	3	27
향후 2년 후 이사 계획 있음	(211)	2	39	41	34	9	16
현재 이사 계획 없음	(321)	1	4	6	5	1	89
모름	(54)	2	5	7	5	2	86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309)	4	17	21	20	4	55
적당하다	(155)	2	17	19	10	3	67
싸다	(193)	8	24	31	8	3	58

질문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 657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 2024. 11.8 ~ 11 // 2025. 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이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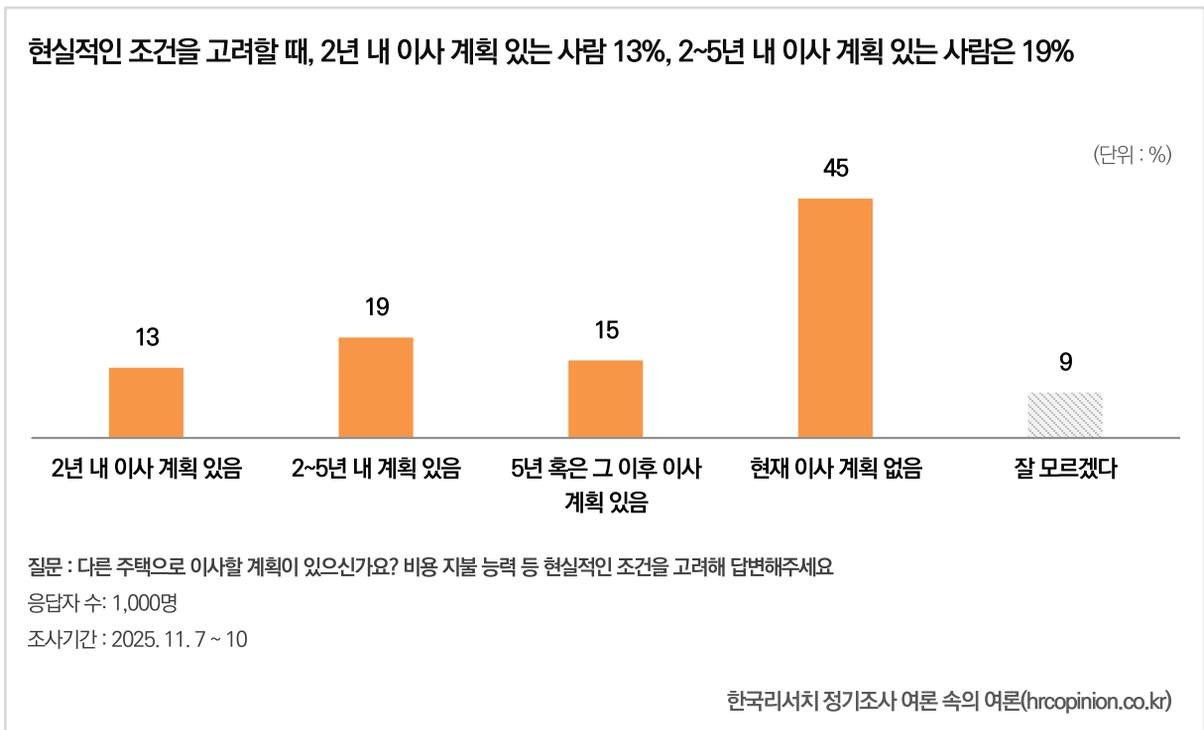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2년 내 이사 계획 있는 사람 13%,
2~5년 내 이사 계획 있는 사람은 19%**

비용 지불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3%, 2~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은 19%이다. 둘을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 32%가 향후 5년 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 반면 현재 이사 계획이 없는 사람은 45%이다.

30대의 5년 내 이사 계획 비율이 4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특히 2~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9%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1%, 2~5년 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4%로 모두 다른 가구 유형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5년 내 이사 계획 비율은 33%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32%)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5년 혹은 그 이후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25%)이 없는 사람(12%)보다 13%포인트 높아, 자녀 성장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주거 형태에 따라 이사 계획에도 차이가 있다. 전세 거주자의 55%, 월세 거주자의 48%가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자가 거주자는 24%만이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세 거주자는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2%, 2~5년 내 계획이 34%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월세 거주자도 2년 내 이사 계획이 25%로 높은 편이다.

주택 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5년 내 이사 계획 비율은 40%로, 보유자(28%) 대비 12%포인트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 중 41%가 5년 내 이사를 계획해 아파트 거주자(30%)나 단독주택 거주자(27%)보다 높다.



30대의 47%가 5년 내 이사 계획,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1인 가구, 전·월세 거주자, 주택 미보유자,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5년 내 이사 계획 있는 사람 다수

(단위 : %)

	사례 수 (명)	2년 내 이사 계획 있음		5년 내 이사 계획 있음	5년 혹은 그 이후 이사 계획 있음	현재는 이사 계획 없음	잘 모르겠다
		2년 내 이사 계획 있음	2~5년 내 이사 계획 있음				
전체	(1,000)	13	19	32	15	45	9
연령							
18-29세	(150)	15	22	37	8	35	21
30대	(150)	18	29	47	17	29	8
40대	(171)	12	18	29	22	33	15
50대	(194)	16	16	32	16	49	3
60대	(178)	11	19	31	13	53	3
70세 이상	(157)	8	11	19	11	67	4
거주지역							
서울	(186)	15	20	35	11	42	12
인천/경기	(323)	14	20	34	18	42	7
대전/세종/충청	(108)	12	18	31	14	44	11
광주/전라	(96)	9	19	28	16	47	9
대구/경북	(96)	14	17	31	16	46	7
부산/울산/경남	(149)	12	17	29	14	50	7
강원/제주	(42)	14	21	35	9	50	6
주택 보유 여부							
보유	(657)	11	17	28	15	49	8
미보유	(343)	18	22	40	14	37	9
주거 형태							
자가	(663)	9	15	24	15	52	9
전세	(126)	22	34	55	15	22	8
월세	(180)	25	23	48	11	33	9
미성년 자녀 유무							
미성년자 자녀 있음	(190)	11	21	33	25	35	7
미성년자 자녀 없음	(810)	14	18	32	12	47	9
가구원 수							
1명(1인가구)	(189)	21	24	44	11	34	10
2명	(314)	10	17	27	14	53	5
3명	(241)	15	20	35	16	39	9
4명	(204)	12	16	28	16	45	11
5명 이상	(53)	4	16	19	17	52	11
현 거주주택 형태							
단독주택	(122)	15	13	27	12	50	11
아파트	(662)	10	19	30	15	48	7
연립·다세대주택	(195)	22	19	41	15	33	12

질문 :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용 지불 능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답변해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11.7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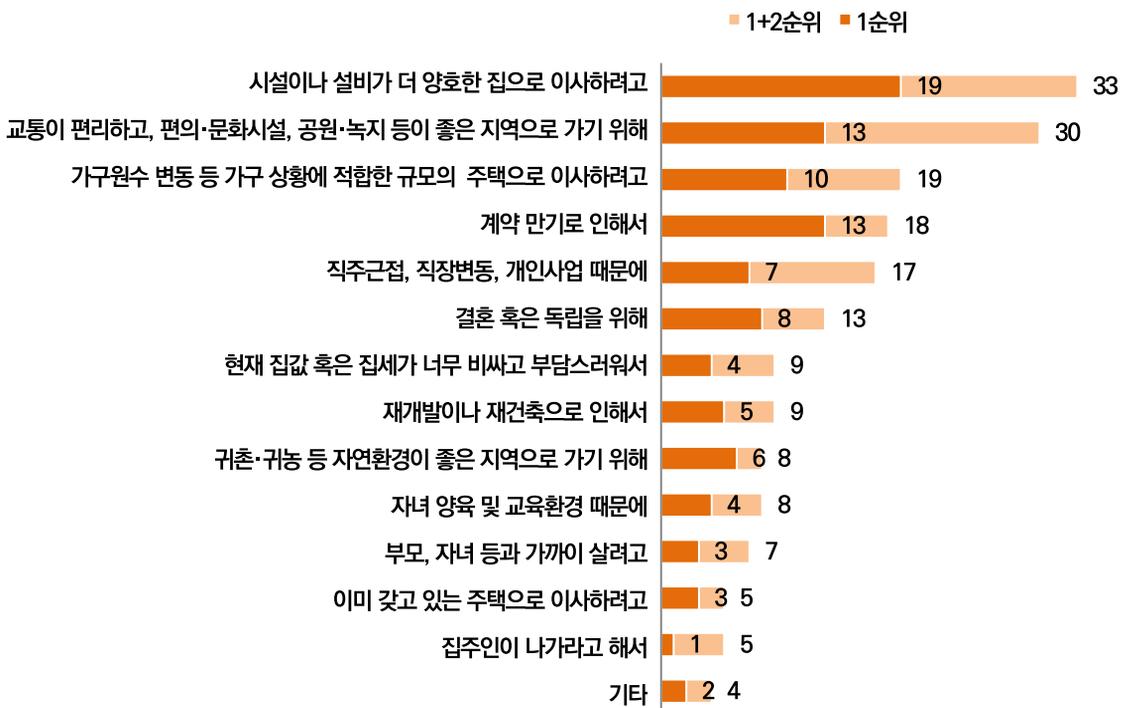
주된 이사 이유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계약만기 등 이사를 갈 지역은 경기와 서울이 다수… 77%는 현재 거주하는 시·도 내에서 이사를 계획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321명에게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를 물었다.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가 33%로 가장 높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도 30%로 뒤를 잇는다(1+2순위 기준). 더 나은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 이사의 가장 주된 동기이다. '가구원수 변동 등 가구 상황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19%)', '계약 만기(18%)', '직주근접, 직장변동, 개인사업 때문에(17%)' 등도 주요 이사 이유로 언급된다.

이사할 지역으로는 경기(27%)와 서울(22%)이 가장 많아, 절반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 내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의 77%는 현재 거주하는 시·도 내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 지역으로 이동을 계획하는 사람은 23%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50%, 비수도권 내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42%로, 대부분이 같은 권역 내 이동이다.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 중 수도권 내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54%(수도권→수도권 50%, 비수도권→수도권 4%)이다.

주된 이사 이유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계약만기 등

(단위 : %)



질문 :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비교: 최대 2순위까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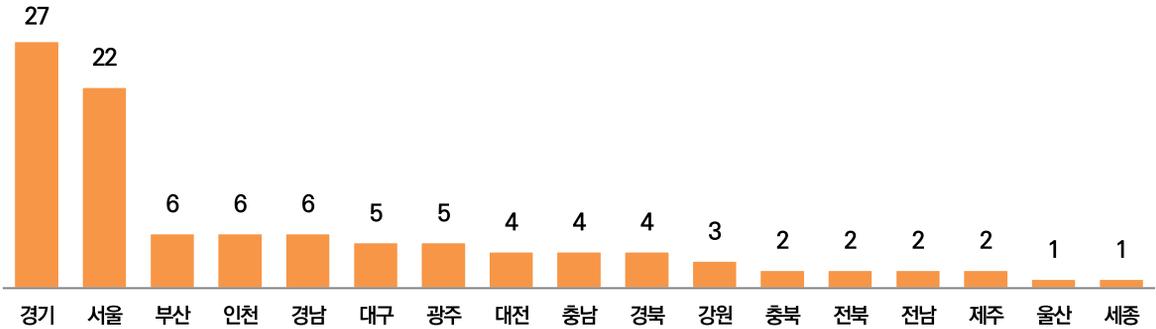
응답자 수: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21명

조사기간: 2025. 11. 7 ~ 10

또한 현재 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46%로 가장 많고, 특·광역시에서 특·광역시로 이사하는 경우도 39%이다. 반면 도에서 특별·광역시로의 이동(9%)이나 특별·광역시에서 도로의 이동(6%)은 소수에 그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과 마찬가지로, 도시 규모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지역 안에서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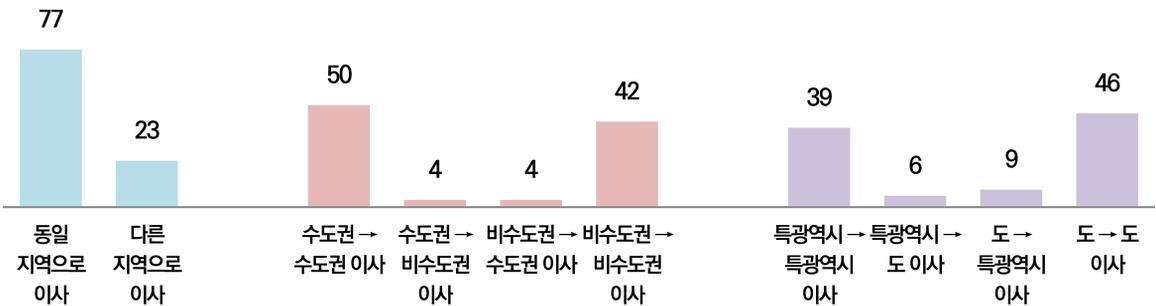
이사 할 지역으로는 경기(27%), 서울(22%)이 다수

(단위 : %)



**현재 거주하는 시·도 내에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 77%,
수도권 내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54%(수도권 → 수도권 이사 50%, 비수도권 → 수도권 이사 4%)**

(단위 : %)



질문 :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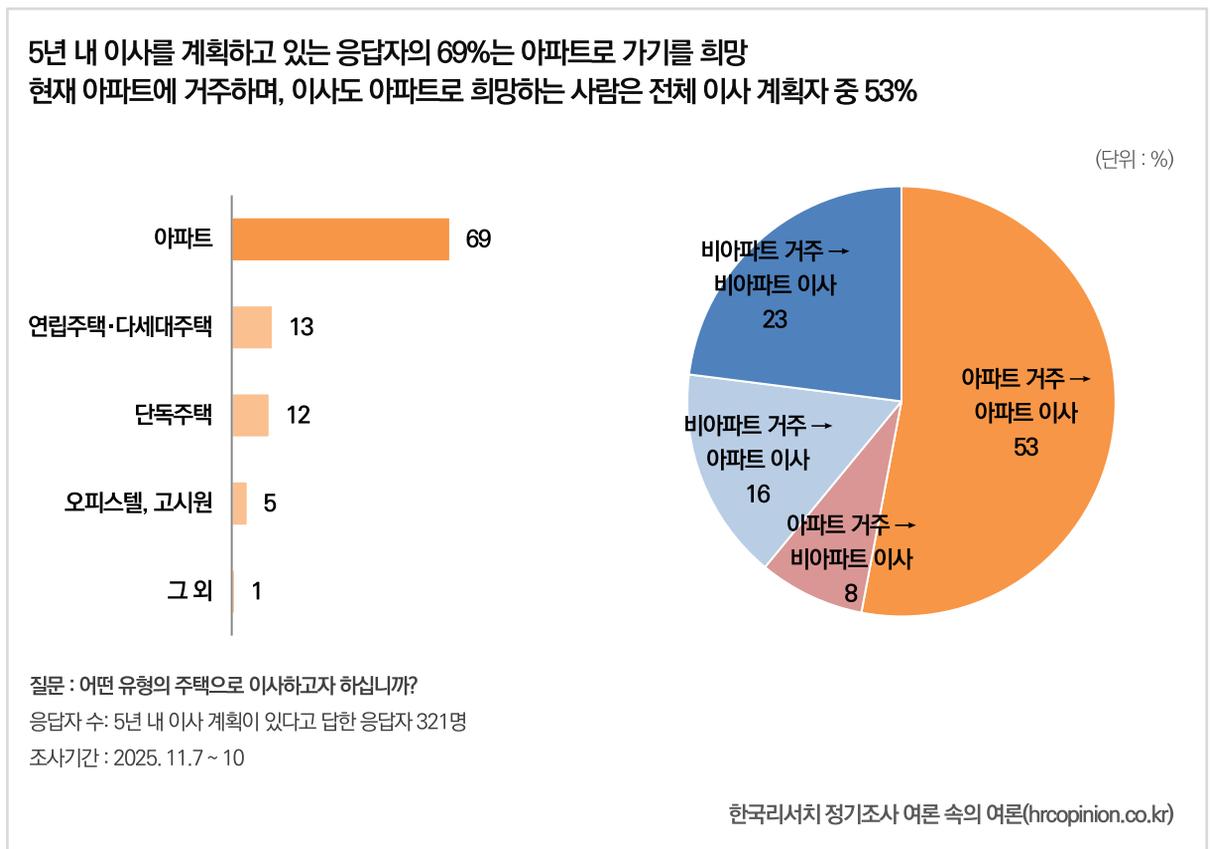
응답자 수 :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21명

조사기간 : 2025. 11.7 ~ 10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의 69%는 아파트로 가기를 희망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사로도 아파트로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이사 계획자 중 53%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 중 69%가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희망한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13%), 단독주택(12%), 오피스텔·고시원(5%) 등은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재 거주 주택 형태와 희망 주택 유형을 교차해 살펴보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전체 이사 계획자의 53%로 가장 많다.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사람도 16%로, 아파트로의 이동 수요가 합쳐서 69%에 달한다. 반면 비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는 23%,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경우는 8%에 그친다. 아파트가 이사 시 가장 선호되는 주택 유형이며, 현재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주택 매도와 이사 계획은 서로 맞물려 있다. 새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이 보유 주택 매도를 함께 고려한다. 이사의 핵심 동기는 더 나은 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의 이동이며, 아파트를 다른 주택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비아파트 거주자도 상당수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주거 선호는 여전히 공고하다.

주거 이동은 대부분 같은 시·도, 같은 권역, 비슷한 도시 규모 안에서 이루어진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을 원하지만 생활권 자체를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다. 30대와 전·월세 거주자, 1인가구 등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이사 계획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이동 방향이 수도권과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 상향 이동의 욕구가 확인된다.

3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 방향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49% 50대, 광주/전라, 진보층 등 현 정부 핵심 지지층에서 긍정평가 높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5%,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9%로, 부정적인 평가가 14%포인트 높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으며, 이재명 정부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1월 19일~21일 진행한 NBS 전국지표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3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월 27일~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2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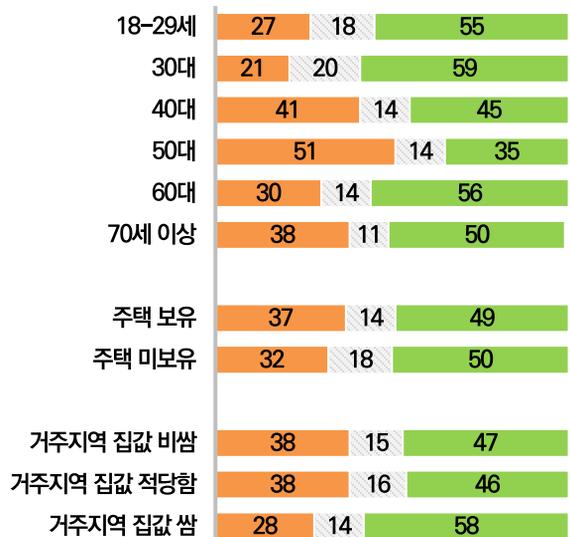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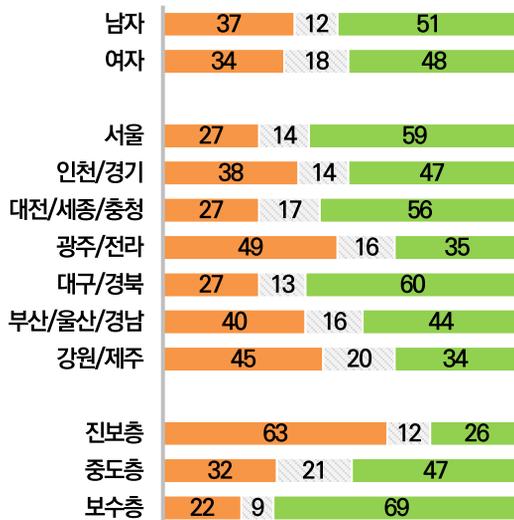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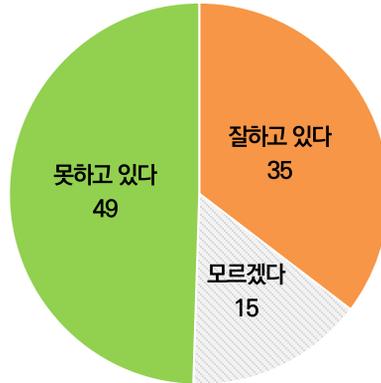
50대의 긍정평가가 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40대(41%)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60대(긍정 30%, 부정 56%)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대비 두 배 가량 많으며, 18~29세(긍정 27%, 부정 55%)와 30대(긍정 21% 부정 59%)은 전 연령대 중 긍정평가가 가장 낮다. [20대는 주택 구입의 장애물로 소득이나 자산 부족을 언급한 사람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고](#), 동시에 [향후 거주지역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내 집을 갖기 더 어려워 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보층(63%), 광주/전라지역 거주자(49%) 등 현 정부 주요 지지층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우세한 반면, 서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대비 두 배 가량 높다.

본 조사가 진행된 이후, 정부는 용산, 과천 등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다주택자 투기 억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1월 기준,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49%
50대, 광주/전라, 진보층 등 현 정부 핵심 지지층에서 긍정평가 높아

(단위 : %)



질문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주택 매매가격 안정(46%)과 투기·불공정 거래 근절(3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안정'이 46%로 가장 많고,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이 34%로 뒤를 잇는다(1+2순위 기준). 1순위 응답만 놓고 보아도 매매가격 안정(25%)과 투기 근절(17%)이 1, 2위를 차지한다. '주택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24%)'와 '주택 공급 확대(23%)'도 4명 중 1명 정도가 중요하다고 꼽았고, '무주택자 주거 지원 강화(19%)', '전월세 가격 안정(15%)',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13%)', '주거환경 및 주택 질 개선(13%)'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투기 근절에 대한 높은 정책 수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도 연결된다.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49%)이 바람직하다는 응답(40%)을 앞섰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2021년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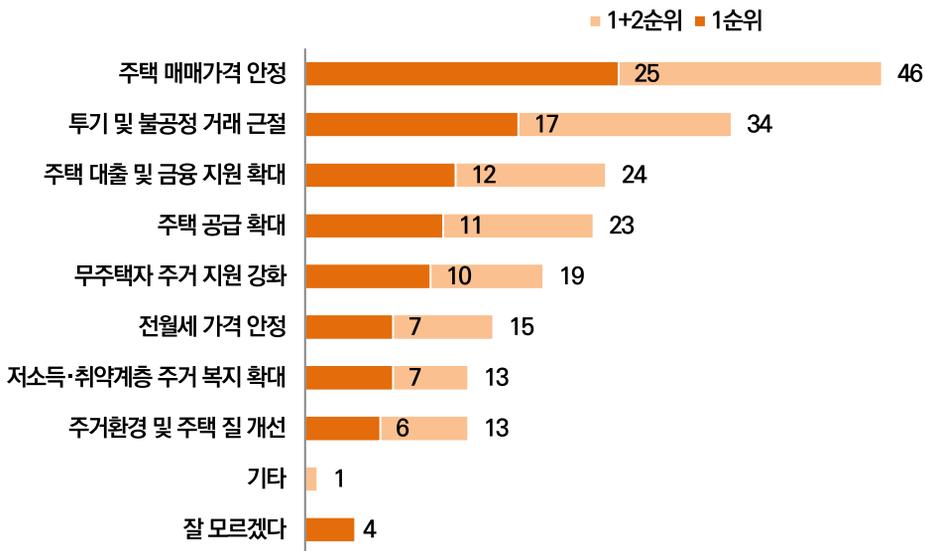
50대 이하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4~50%로 타 정책에 비해 크게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이 중요하다는 의견 역시 40% 이상으로 다수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공급 확대'를,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가격 안정'을 언급한 사람도 많아지는 점이 눈에 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29%가 '무주택자 주거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택 보유자(14%)보다 15%포인트 높다. 반면 주택 보유자는 38%가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이 중요하다고 답해 미보유자(27%) 대비 11%포인트 높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주택 매매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다수가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다(41%). 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는 29%가 '주택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18%) 대비 11%포인트 많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기 근절을, 이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대출·금융 지원 확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주택 매매가격 안정(46%)과 투기·불공정 거래 근절(34%)

(단위 : %)



질문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최대 2순위까지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은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이 ‘주택 매매 가격 안정’만큼 중요해
주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자 주거 지원 강화’가 주택 매매 가격 안정 다음으로 중요

(단위: %)

	사례 수 (명)	주택 매매 가격 안정	투기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주택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 주거 지원 강화	전월세 가격 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	주거환경 및 주택 개선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46	34	24	23	19	15	13	13	4
연령										
18-29세	(150)	44	22	20	17	21	29	15	7	7
30대	(150)	50	28	27	15	20	21	11	15	4
40대	(171)	46	26	29	20	22	16	12	15	5
50대	(194)	46	38	28	23	18	15	8	14	3
60대	(178)	45	47	17	29	22	7	15	13	2
70세 이상	(157)	46	41	22	29	13	7	18	11	6
거주지역										
서울	(186)	46	30	27	23	21	16	13	11	6
인천/경기	(323)	49	33	22	24	18	17	11	15	4
대전/세종/충청	(108)	41	27	32	25	20	14	14	14	5
광주/전라	(96)	46	41	22	18	24	16	15	7	1
대구/경북	(96)	39	39	19	22	23	16	15	13	5
부산/울산/경남	(149)	48	38	23	21	15	12	14	12	6
강원/제주	(42)	51	39	17	27	16	14	16	12	0
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6)	38	33	18	20	25	17	21	10	7
300-600만원	(408)	53	34	25	22	17	15	11	14	2
600만원 이상	(256)	46	35	29	27	16	13	6	13	5
이념성향										
진보층	(250)	49	42	20	20	22	12	13	13	3
중도층	(369)	44	32	24	20	19	19	14	9	8
보수층	(356)	47	31	27	28	17	14	13	16	1
주택 보유 여부										
보유	(657)	49	38	26	24	14	12	10	15	4
미보유	(343)	40	27	19	19	29	22	19	8	6
정부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355)	45	41	18	21	22	17	11	13	3
못하고 있다	(494)	49	29	29	27	18	14	13	13	2
모르겠다	(151)	39	35	21	11	18	15	16	9	16

질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2순위까지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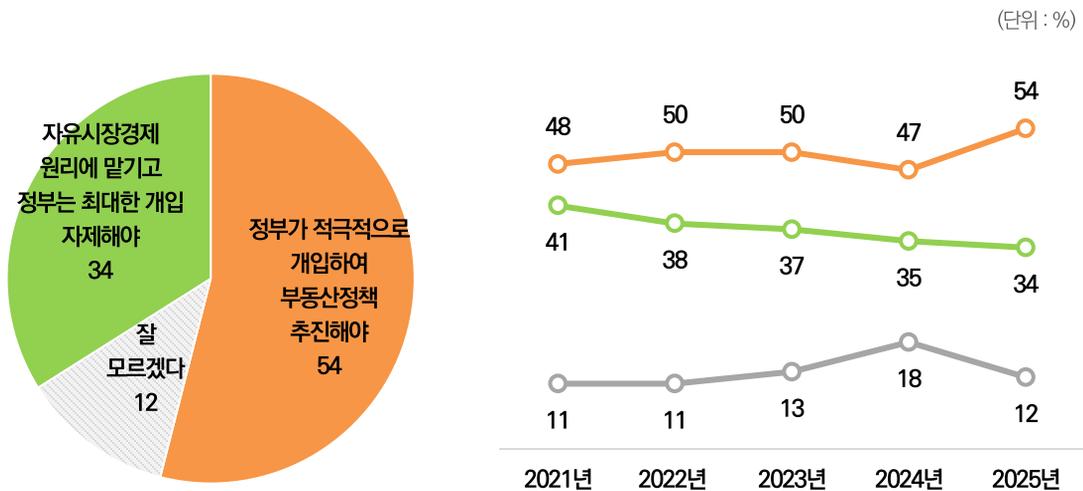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11.7 ~ 10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동산정책 추진 54%,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개입 자제 34%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4%,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4%이다. '잘 모르겠다'는 12%이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개입 자제를 주장하는 의견보다 20%포인트 높다. 본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은 역대 최고, 정부의 개입 자제를 지지하는 응답은 역대 최저이다.

성별이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5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과 정부의 개입 자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엇비슷하다. 또한 진보층에서는 77%가, 중도층에서는 55%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55%가 정부의 개입 자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동산정책 추진 54%,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개입 자제 34%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



질문 :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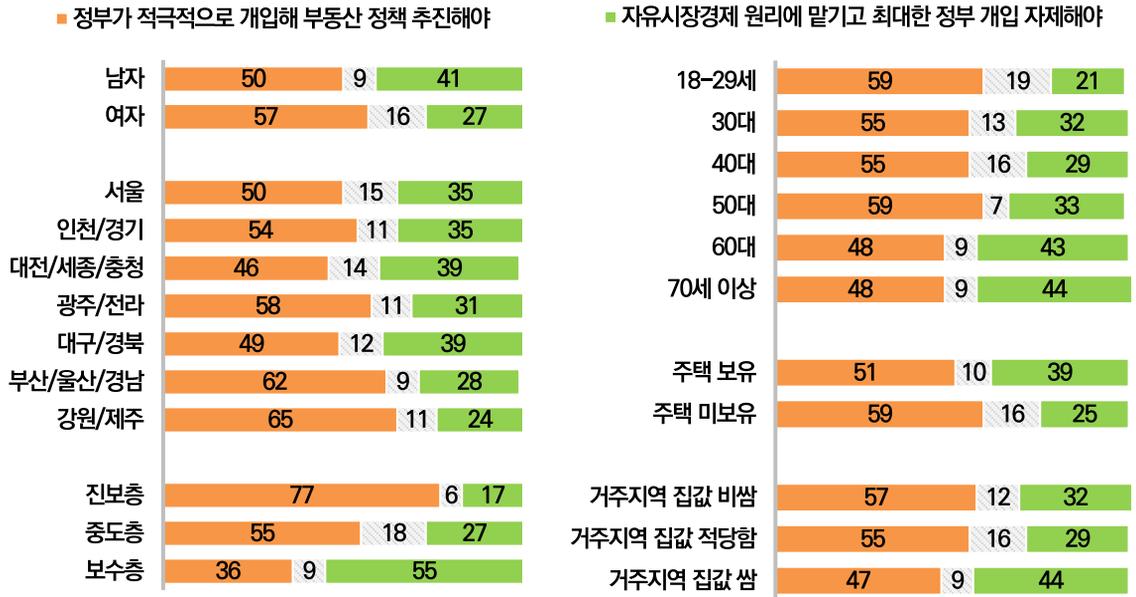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1.12~ 15 // 2022. 10.14~ 17 // 2023. 11.10~ 13 // 2024. 11. 8~ 11 // 2025. 11. 7~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념성향에 따른 격차 뚜렷... 진보층 77%, 보수층 36%가 정부의 시장 개입 지지
50대 이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지지 절반 이상

(단위 : %)



질문 :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2021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무주택자 주거 지원과 전월세 안정 등 눈앞의 주거 부담 완화를 중시하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투기 근절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향후 부동산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0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3,697명 , 조사참여 1,62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2%, 참여대비 61.6%)
조사일시	• 2025년 11월 7일 ~ 11월 1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